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여름 방문객 수 '도내 1위'

피서 즐기려 21만여명 다녀가
치맥페스티벌 대표축제 자리매김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 개관
해양 레포츠 운영 등도 '한몫'

◀지난 7월13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개장한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21만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인산인해를 이뤘다. 사진은 지난달 13일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피서객들 모습.

올여름 완도 신지 명사십리의 방문객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7월13일 개장한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지난달 18일까지 20만5천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 내 58곳 해수욕장의 방문객은 총 63만명으로 이 중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방문객 수가 가장 많아 1위를 차지했다.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수욕장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인 '블루 플래그'를 5년 연속 획득한 곳으로, 올여름에는 피서객들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과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해양치유를 주제로 하는 모래 조각품 전시, 플라잉 보드 쇼, 비치발리볼 대회, 해양 레포츠 무료 체험, 플로깅 등이 진행됐으며 해양치유 힐링 콘서트와 해양치유 치맥 페스티벌이 인기였다.

특히 해양치유 치맥 페스티벌은 군에서 처음 진행한 행사로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와 버스킹, EDM 파티, 다시마 치킨과 완도 전복 요리 등을 선보이며 피서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페스티벌에는 이틀 동안 4천여명이 다녀가며 완도의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신지 명사십리 개장 기간 동안 명사십리 일원에 자리한 해양치유센터도 연일 문전성시를 이뤘다.

올여름 신지 명사십리 방문객 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은 완도해양치유센터 개관이 한 몫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름 휴가철에 접어든 7월 말부터는 매일 200명이 넘는 치유객이 방문했으며, 명사십리 개장 기간 동안에는 총 5천536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국내 최초로 개관한 해양치유 시설로 딸라소풀, 명상풀, 해조류 거품 테라피 등 16개의 테라피실을 갖췄으며, 금빛 모래사장이 펼쳐진 신지 명사십리에 자리 잡아 청정한 자연과 푸른 바다를 보며 치유할 수 있어 힐링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딸라소풀은 수중 테라피를 받으며 탁 트인 바다 전망을 감상할 수 있어 힐링 포인트로 꼽힌다.

오현철 관광과장은 "앞으로 여름철 피서객 뿐만 아니라 연중 완도를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다양하고 차별화된 여행, 치유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설계수명 다해 고장 잦아…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해야"

무안군의회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절차 중단" 촉구
"후쿠시마 사고 명심"…정부에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건의

무안군의회는 최근 한빛원전 1·2호기의 설계수명 연장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무안군의회 제공〉

무안군의회는 1일 "중대사고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한빛원전 1·2호기의 설계수명 연장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무안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설계수명이 다한 한빛원전 1·2호기를 10년 더 가동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한빛원전 1·2호기는 이미 총 102건의 사고와 고장이 발생한 만큼 국내 가동 원전 26기 가운데 안전성이 가장 취약한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6월 한빛원전에서 불과 42㎞ 떨어진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며 이제 더 이상 호남지역도 지진의 안전지대라 할 수 없게 됐다"며 "후쿠시마 사고 당시 최초 폭발이 일어난 곳이 수명을 연장, 30년이 넘은 노후 원전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운영 영향권 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참여,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을 전면 개정하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마련하라"고 건의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불갑산상사화축제' 준비 박차
영광군, 먹거리 조성 친절 교육

영광군은 "최근 제24회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제 먹거리 조성을 위해 축제 참여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친절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매년 9월 상사화 개화시기에 맞춰 개최되는 영광의 대표축제 중 하나인 상사화축제는 올해 추석 명절 기간과 겹쳐 진행되는 만큼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영광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영광군은 위생복(앞치마, 위생모) 배부와 함께 ▲식품위생법 관련 기본 교육 ▲식중독 예방교육 ▲종업원 준수 사항 및 친절서비스 제공 ▲깨끗한 식품 안전 관리 등의 내용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축제 기간 중에도 참여 식품접객업소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 기간 영광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다시 방문하고 싶은 군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친절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호남권생물자원관 '섬 야생식물·발효미생물 연구' 심포지엄 성료

국가생명 연구자원 선진화…섬 야생생물 자원화 관리체계 마련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 야생생물 소재 선진화연구단은 1일 "지난달 3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제45회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섬·연안의 야생식물 및 발효미생물의 기능적 다양성 연구'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시행하는 다부처 국가생명 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됐으며, 2023년 4월부터 3년 9개월간 '섬 특화 야생생물 소재 확보 및 유용성 정보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섬·연안의 야생식물과 발효 미생물의 소재 확보 및 기능성과 관련된 기초·핵심 유용 정보를 생산하는 연구 결과를 주제로 ▲이원우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박사 '한국 도서지역 자생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생성' ▲박재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박사 '난소 절제 마우스 모델의 골(骨) 손실에 대한 포스트바이오틱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Lactobacillus plantarum) MD35의 보호 효과' ▲김영훈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교수 '혐기성 조건에서 거저리의 장내 세균에 의한 폴리스티렌 미세플라스틱 생분해: 혐기성 산화 및 해중합' 순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연구단은 섬 특화 야생생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연구기관과 협력해 식약처의 가이드라인(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에 따라 생물자원 소재의 활성 결과를 구축하고, 발효미생물의 기초 정보를 포함한 핵심 정보를 확보하는 등 품질보존 및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이어 섬생물소재은행(ibis.hnibr.re.kr/bobic)을 통해 산·학·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분양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경민 연구단장은 "앞으로도 섬 야생생물 및 발효미생물 소재의 확보는 물론, 섬 특화 야생생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원관이 보유한 소재가 유용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구축을 주도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해남 어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

총사업비 60억 확보…폐공장·폐창고·빈집 등 재정비

계획 수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이 농식품부가 주관한 2024년 농촌공간정비사업 2차 공모에 송지면 어란지구가 선정되면서 국비 3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0억원을 확보했다.

1일 해남군에 따르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 기반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필요한 정비대상 시설의 정비 및 정주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해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하는 국비지원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송지면 어란지구는 폐공장(옛 삼해식품)과 폐창고, 방치된 빈집 등을 철거·정비해 복합문화센터 등 주민편의시설을 신축하게 된다.

202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기본 계획을 수립해 부지·건물 매입과 정비 등 사업이 완료되면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로 조성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일터, 쉼터, 삶터로서의 마을 환경 및 경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활력 있고 살맛나는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건관 송지면 어란리장은 "마을의 최대 숙원사업인 폐공장 등 유해시설을 정비하게 돼 기대감이 크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과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현산면 월송지구 50억원, 산이면 금호지구 127억원 등 2개소가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돼 기본 /해남=박필용 기자

노인 돌봄 공백 해소 '주력'

영암군, 복지부 공모 선정 2억 확보

영암군은 "최근 보건복지부 등의 '노인 돌봄 공백 해소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억1천97만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노인돌봄 공백 해소 프로젝트'는 병원 퇴원, 거동 불편 등으로 일상에서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기존 재가서비스 등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식사·가사·이동을 지원해주는 시범 사업이다.

사업을 수행할 영암군 서호면 소재 정우재가노인복지센터는 전담 사회복지사 1명, 생활 지원사 10명을 채용해 80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암군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등 지금까지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업무시스템 정비, 인력 채용 등 공모 선정 후속 조치를 마무리한 9월부터 서비스가 실시되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영암=나동호 기자

신안군, 출산·육아 친화환경 조성
임산부 직원 전용 휴게공간 개소

신안군은 "최근 여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산부 직원들만을 위한 전용 휴게공간 개소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휴게실(사진)은 잦은 휴식이 필요한 임산부 직원들의 어려움을 배려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산부 휴게실에는 전용 소파와 발 안마기 등의 편의 시설과 함께 개별 휴식공간 4실을 마련해 임산부 직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했다.

임산부 직원들은 "휴게실 덕분에 잠시나마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휴식을 취함으로써 업무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군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신안=양훈 기자